

최 미 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붕이미지에서 기하학적 도상까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 프린트 전공

최 선 향

지방이미지에서 기하학적 도상까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 미 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 프린트전공

최 선 향

# 인 준 서

최선향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제작된 본인의 작품 중 석사학위 청구전에 전시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과 조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 분석한 것이다.

본인은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지붕의 생경한 모습에서 조형미를 발견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본인에게 느껴졌던 따뜻한 지붕의 감정에서 그 주변형태가 모두 소멸되고 구조만 남은 형태들을 본인의 미감대로 재구성하여 표현 하였다.

지붕이라는 소재에서 출발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본인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를 경험하였다. 이때의 작업태도는 놀이를 하듯 순수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본인의 감성은 개성적으로 표출된다. 또한 자유로운 시각과 관찰을 통하여 형태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작업과정은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형태는 더욱더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형태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퍼즐게임을 하듯 이미지들을 맞춰 보는데, 이것은 형태를 좀 더 기하학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하학적인 형태는 놀이감정에 근거한 개성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점점 발전한다. 즉, 하나의 기하학적 형태가 모여 커다란 기하학적 덩어리가 되고 다시 입체적 기하학으로 나아가는, 마치 생성하는 조형물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때, 포맥스는 기하학의 덩어리가 입체로 나아가는데 조각에 있어서의 재료적 역할을 한다.

미술사적 근거로, 사물을 관찰하는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다중원근법적 시각과, 캔버스의 사각을 벗어난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변형된 캔버스(Shaped Canvas)의 형태를 간략하게 비교·서술하였다.

표현방법에서는 선의 특징과 색채가 작품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작품의 표현의도와 기법을 설명하였고, 작품사진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갖게 된 결과와 앞으로 작업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내용적 측면 .....	3
1) 제작 동기 .....	3
2. 조형적 측면 .....	6
1) 기하학적인 형태 .....	6
(1) 평면에서의 재구성 .....	6
(2) 형태의 재조합 .....	9
(3) 비정형 frame .....	9
2) 표현방법 .....	10
(1) 선(線) .....	10
(2) 색채의 변화 .....	11
3) 제작방법 .....	12
3. 작품설명 .....	14
III. 결론 .....	32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A Piece 45×25×4cm mixed media 2004 .....	14
【작품 2】 A Piece 75×30×4cm mixed media 2004 .....	17
【작품 3】 A Piece 145×50×5cm mixed media 2004 .....	20
【작품 4】 A Piece 140×40×5cm mixed media 2004 .....	23
【작품 5】 A Piece 146×40×7cm mixed media 2004 .....	26
【작품 6 · 7】 A Piece 106×80×5cm · 106×98×5cm mixed media 2004 .....	28
【작품 8】 A Piece 152×32×5cm mixed media 2004 .....	30

## 도판 목 차

【 도판 1 】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 Chair 』 1985.

Photographic collage

【 도판 2 】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 The Desk 』 1984.

Photographic collage

## I. 서론

예술은 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자신만의 감성과 감각으로 표현된다. 비록 표현의 대상이 일상에서는 무의미한 것일지라도 작가의 예술적 작업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의미로 탄생한다.

주위를 살펴보면 유난히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특히 사물의 기하학적인 형태들 그것이다. 천천히 들여다보면, 숨 쉬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찾는 숨은 그림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새롭게 해석된 형태들은 보는 각도와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진다. 단순한 이미지들은 반복되어지고 겹쳐지고 변형되면서 또 다른 형태가 된다.

본인에게 있어서 지붕은 감성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여 낮은 시각의 체험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발견하고 그것을 놀이의 대상으로 연결시켜 작업으로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지붕 형태들을 나열하고 조합하고, 재구성하면서 느껴지는 재미들을 조형적 작업과정과 연관지어보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전개된 작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장에서는 본인이 작업하게 된 동기를 조형적 작업관점을 들어 알아본다.

제 2 장에서는 조형적 측면으로서 제작 과정을 순서에 따라 언급하고

결부하여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논한다.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사진조합에서 보여 지는 다중원근법적 시각을 본인작품과 비교하고,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Shaped Canvas'의 형태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또, 표현요소로서 작용한 선(線)과 색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작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작품에 표현된 기하학적인 형태와 조형작업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조립될 수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실험적이고 발전적인 작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내용적 측면

#### 1) 제작 동기

사물을 바라보는 일상적인 시각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면, 색다른 시각으로 보여 지는 사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은 높은 건물에서 주변 사물들을 감상하던 중, 내려다보이는 시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높은 건물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에 생경함을 느꼈다. 그 이유는 높이의 차이 때문에 아래 풍경의 윗부분만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낮은 건물에는 내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곳에서 머물면서 보호받았던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들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유였다.

본인은 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공간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밖으로 나오면 듄직하게 건물을 보호해주고 있는 지붕을 발견했다. 지붕형태만 봤을 때, 그것은 거대한 배의 형상이나 커다란 생선모양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기도 했다. 그 지붕은 각기 다른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그 형태들은 퍼즐게임을 하듯, 조합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전시 공간에 재구성되는데, 재구성된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확대 · 축소된 이미지들로 표현된다. 마치 퍼즐처럼 다시 해쳐모여 또 다른 기하적 군집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다중원근법을 접하면서 화면을 구성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극대화 되었다.

본인에게 다각도 시점으로 사물을 묘사하는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사진 콜라주(Photo Collage)방식을 모사(模寫)하는 수업은, 화면구성을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주었다.

스냅사진으로 한 곳의 풍경을 여러 방향으로 찍어서 연결하는 작업들에서 둥근 호수가 큰 강이 되는 것도 보았고, 반듯했던 건물들이 아슬아슬 부서질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본인은 이 수업과정에서, 지붕을 찍어서 자르고 해체 하였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의 이미지들을 조합하고 다시 복사를 했다. 이때, 지붕은 확대된 모습과 축소된 모습이 함께 공존한다. 그 형태들을 조립하다 보니 다른 기하학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 형태들은 더 이상 지붕이 아니었다.

면들을 이루고 있는 선의 두께, 넓이, 길이와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지붕의 단면들은 서로 겹쳐지고 교차하면서, 새로운 형태들로 바뀌고, 기존의 사각공간에서 다양한 운동성은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자르고 붙이는 조형적 작업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태를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사진으로 조합된 지붕의 형상들이 작업과정 안에서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하여 또 다른 공간의 체험을 갖게 함이 작업의 동기이자 의지가 되었다.

작품 「A Piece」 시리즈의 조형태도와 과정은 본 연구 작품에서도 일관된 것으로 본인의 상상력과 감정, 조형감각에 따라 구성하였다.

본인 역시 처음에는 억제되지 않은 자발적인 행위로 지붕의 여러 단면들을 모아서 붙여보고 잘라보고, 또 다시 연결해 보았다. 조형적 미감에서 오는 즐거움은 계속 다양한 표현방법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완성된 드로잉은 평면적인 형태였고, 실제 지붕의 기능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이 기하학적으로 변해버린 지붕형태를 입체로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

이 때 ‘지붕 단면들의 재구성 구조’는 평면을 입체로 만드는 가능성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의 평면적 구조는 ‘포맥스’<sup>1)</sup>라는 재료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높이와 구조로 좀 더 다양한 단차를 내며 새로운 형태의 입체가 되었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조형놀이로서의 작업태도가 본인내부에 있는 조형 감각을 일깨워 주었으며, 형태에 대한 자유로운 조합을 통해 작품 속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이미지들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은 증폭되었으며, 이렇게 작용한 작업태도는 본인에게 변화 있는 새로운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 하였다.

---

1) 포맥스- PVC를 원료로 하여 발포 압축한 제품이며, 플라스틱이나 목재의 장점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절단/ 절곡/ 진공성형이 용이하고 녹슬거나 부식이 되지 않아 옥내/ 옥외 할 것 없이 안심하고 설치 제작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재이다.

## 2. 조형적 측면

### 1) 기하학적인 형태

본인 작업의 형태는 앞서 거론했던 놀이로서 조형적 작업과정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되었다.

모티브 즉, 지붕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기하학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 사진을 이용하여 형태를 조립하는 드로잉 과정에서 좀 더 기하학적으로 변모했으며, 입체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율동감이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드로잉 단계에서 사진이미지 이용과 조립, 형태의 재조합, 비정형 frame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시작에서부터 작업완성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 (1) 평면에서의 재구성

지붕형태의 단면을 객관적으로 노출해 내는 사진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이용했다. 각기 다른 시점을 가진 사진들은 ‘복사’라는 방법을 통해 더 방대한 양의 이미지로 축적되어 간다. 복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기계적으로 해체된 이미지는 이번엔 본인의 감성대로 새로운 형태로 변모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본래의 이미지는 계속 전형(轉形)되어 간다. 사진과 복사물은 일시성과 반복성, 그리고 유연성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전형(轉形)은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서서히 여러 가지의 상태로

변화 있게 이미지를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를 확대·축소하다보면, 어느새 처음 이미지는 부정확해지고 해체(解體)된다. 이런 방법으로 전환시킨 복사의 이미지들은 애초의 사진과는 다른 미감을 가진다.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변화되어진 복사물들은 대상물과의 ‘차이’를 드러내며 ‘재구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복사, 사진의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대상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정지된 여러 화면을 움직임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하였다. <작품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빛의 느낌이나 속도감, 율동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또, 한 화면 속에서 어떤 형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하는 것은 조형적 문제이다.<sup>2)</sup> 사진으로 보여 지는 이미지의 시점들은 여러 각도에서 잡은 것이다. 시점을 조합한 화면 속에서 조립한 것은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구성된 이미지들은 작품 안에서 긴장된 관계성을 보여주고, 조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상의 형태로부터 보여 지는 객관적 인식 외에 새로운 의미의 재해석이 가능하도록 형태를 재구성하게 된다.

작업에 있어서 화면에서의 자유로운 구성은, 대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지붕이라는 이미지를 자르고 조립하여 시각적으로 조합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것은 다른 형태들이 공존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형태로 조립된 화면위에 개별적인 이미지들이 시선의 방향을 변화시킨다.

---

2) 전상범, 「구성」, 보음사, 1997

조합은 화면에서 다양성을 추가시키게 되고, 의도되지 않은 우연과 의도된 표현의 조화로 더욱 자연스럽게 개체들 간의 어울림을 생각하게 되면서, 독특한 조형적 공간구성을 한다.

이런 자유로운 구성과 조합을 진행하면서, 완성된 형태는 기하학적으로 보였다. 형태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직선이 강조되게 되고, 기하학적으로 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구성적인 면에서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작품은 본인에게 다중시각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여러 시점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자르고 재구성한다. 사진에 내재되어 있는 원근법의 법칙을 완전히 뒤엎어버림으로써 사진이 갖고 있는 재현이라는 체계를 완전히 해체시킨 것이다.<sup>3)</sup> 사진작품 <Chair>(도판 1)에서 그는 카메라를 수평과 수직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고, 전체 조합할 때에는 일부분을 확대시키고, 어긋나게 표현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인 또한 지붕을 다시점으로 찍어서 확대·축소하거나 아주 이질적이게 만들어서 한 화면에 구성하였다.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3) 한 성희 「David Hockney, 미술사의 연금술」, 월간미술 5월호, 1999

## (2) 형태의 재조합

퍼즐이란 학문적인 것보다 놀이로 풀어보는 ‘수수께끼’ 전반을 가리킨다. 즉, 퍼즐은 일종의 두뇌 유희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키워나가고, 조립하는 동안 인내력이 향상되고, 성취욕도 강화된다. 이런 기능으로 인해 퍼즐을 시작하면, 몰두하게 되고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앞서 얘기했던 작업과정은 퍼즐놀이를 하면서 마음껏 발산된다.

방대한 양의 복사이미지를 자르고 조립하는 것은 퍼즐놀이와 유사하다.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재미이다. 한 조각 옆에 제대로 어울리는 조각이 올 때까지 이것저것 맞춰보는 놀이. 그 놀이를 하는 것처럼, 여러 이미지 중에서 맞는 이미지를 골라서 조립하는 놀이를 했다. 그래서 어울리는 이미지가 나오면, 퍼즐을 완성 했을 때의 성취감, 만족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렇듯 퍼즐놀이는 형태를 새로운 방법으로 재조합이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 (3) 비정형 frame

본인 작품의 형태구성은 앞서 설명했듯이, 자유로운 과정을 통해서 사각으로 한정되었던 틀을 버리고, 각 화면을 불규칙하게 결합시키면서 다양한 이미지들로 구성하였다.

퍼즐을 맞추듯, 완벽한 형태를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어진 형태는 보통 회화, 판화 등의 그림이 일반적으로 갖는 사각 형태(form)에서 훨씬 멀어졌다. 그것들은 한 덩어리로서 존재했으며, 비정형성을 갖는다.

형태적인 요소만을 봤을 때,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가 작품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본인의 드로잉, 조합, 재구성의 과정이 비슷하게 닮아있음을 느낀다.

프랭크 스텔라의 변형된 캔버스의 사용은 판화의 영역에 확대를 가져왔으며, 형태뿐만 아니라 그림들의 의미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가져왔다.

본인 작업의 전개방식에서 프랭크 스텔라의 변형된 사각형의 형태들은 본인에게 형태구성에 자유로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 2) 표현 방법

### (1) 선(線)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직선들은 가건물 지붕을 이루고 있는 강한 선들로부터 표현되었는데, 지붕을 이루고 있는 선들은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울기로 보인다. 그 기울기에 따른 선들은 두껍게 보이기도 하고, 얇게 보이기도 한다.

본인은 그 선들을 단순하게 시각화 시켜서 표현하였고, 선들의 부피감을 표현하기 위해 깊게 부식하는 방법(deep-etching)을 사용하기도 했다.

깊게 부식하는 방법(deep-etching)을 통해서 뽑아져 나온 잉크들은 <작품 3>에서 보는 것 같이 일부 옵티컬(optical)하게 보이기도 한다. 판에 선을 그어서 얇게 부식 시킨 것과, deep-etching 기법으로 두껍게 뽑

아저 나온 잉크의 느낌은 차이가 난다.

<도판 1>의 얇게 부식된 선들은 정교함과 세밀함이 느껴지고, <도판 4>의 깊게 부식하는 방법(deep-etching)으로 표현된 것은 잉크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감으로 입체감이 느껴지고, 두꺼운 잉크가 빛을 받으면서 흔들리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선들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훨씬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결국, 본인이 처음 각각의 면에 사용한 단순하고 규칙적인 선들은 점차 다양한 두께와 부피로 바뀌면서, 화면 안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이중적으로 보이거나, 선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기도 하며 극대화된다.

## (2) 색채의 변화

본인의 동판작품에서 보이는 색은 검정색으로부터 출발했다. 그것은 흰색과 검정색. 2분법적인 화면이 가지는 강렬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면 전반에 흐르는 검정색에서 오는 느낌들은 약간의 단순함을 수반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색을 첨가해서 찍어 보았다. 은색은 펄(purl)의 느낌으로 반짝거림도 있고, 미미하지만 광택의 효과도 가진다. 은색의 사용은 검정색이 가지는 단조로움을 해소했다.

또, 은색은 금속적인 느낌이 강하다. 금속성은 차가운 느낌을 연상시키며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런 금속성을 가진 색은 빛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작품에 금속성은 더 가미되었다.

화면에서 검정색이 빠지고, 은색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화면의 이미지들의 금속성 색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은색에 파란색이 첨가되면서 <작품6 · 7>은 조각조각 조금씩 다른 느낌의 색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같이 같은 색의 느낌으로 표현한 것은 한 덩어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제작 방법

본인작품 제작과정 중, ‘포맥스’ 라는 소재를 이용하면서 입체형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포맥스는 다루기가 용이한 건축마감재로서, 본인이 작품을 입체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소재이다.

먼저 2mm 포맥스를 작품의 사이즈에 맞게 자른 후에 접착본드를 이용하여 단차를 내서 입체화 시킨다. 단차는 본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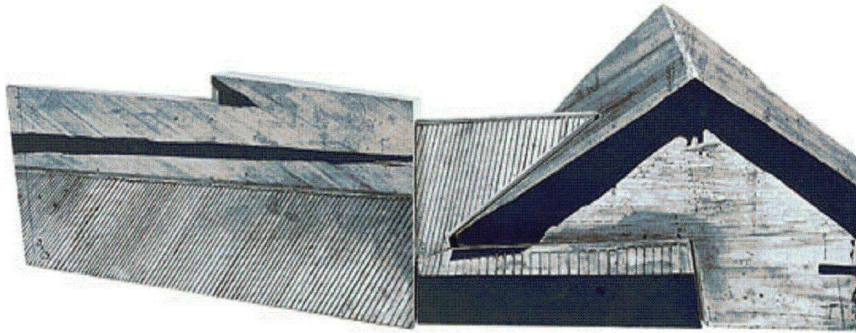
이음새 부분에 핸디코트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처리를 한 후, 유광 페인트와 무광 페인트를 5 : 5 비율로 섞은 반광 페인트를 칠한다. 반광 페인트는 마감재를 더욱 깨끗하게 해주고, 쉽게 때타지 않게 해준다.

완성된 틀 위에 접착용 본드를 이용해서 찍어놓은 이미지를 붙인다. 찍어놓은 이미지는 먼저 gloss varnish 로 코팅처리가 되어있다. 종이에 코팅처리를 한 후에 색감은 미묘하게 바뀌었다. <작품 4>처럼 금속의 느낌이 나는 은색은 광택을 내면서, 더 금속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고, <작품 5>에서는 gloss varnish 가 가장 잘 어울렸는데, 마치 흰색 인조 가죽에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변했다. 이렇게 처리된 조각들을 포맥스 위에 붙이고, 마무리를 하였다. 포맥스는 판화를 찍어낸 종기와 적절하게 어울리는 재료였다. 가볍고

절단(cutting)이 쉬우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형태가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하드보드종이보다는 견고하고, 나무보다는 경쾌한 질감을 가졌기 때문에 입체작업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앞서 언급한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은 실제 전시공간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재조합된다. 작품들을 고정된 틀에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벽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은 본인에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다. 작품은 뒷면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벽면에 못이나 압정 등을 이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잘 빠지지 않는다.

#### 4. 작품 설명



【작품 1】 A Piece 45×25×4cm mixed media 2004

## 【작품 1】 A Piece

이 작품은 본인작업의 모티브가 되었던 지붕의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지붕과 연결되어 있는 벽의 표현은 전체가 어느 건물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지붕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있어 내부를 보호해주는 것’ 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사용된 판들은 누군가의 작업과정에서 버려지지 않고 조각나지 않고, 판 자체로 다른 작업이 가능하게끔 버터 준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 판재들은 오래되어서 약간의 마모가 되거나, 부식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판들을 보면서, 지붕의 오래된 맛과, 낡고 낡음이 느껴지기도 했다.

2장의 사진으로 놀이를 하다가, 지붕이 맞닿는 선에서 붙이고 약간의 높이조절을 한 후에 실제 판 사이즈로 복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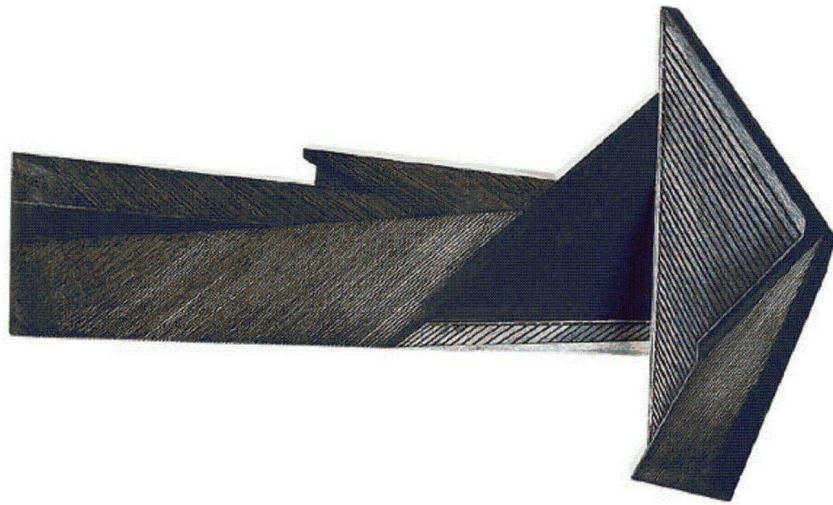
그라운드가 발라진 판위에 자를 대고 선을 긋는 행위로 직선 느낌의 선들을 표현 하였다. 지붕과 벽돌부분의 자연스런 부식은 염화 제이철을 이용한 spit-bite기법으로 진행했다. 염화 제이철과 물을 1:9 비율로 섞어서 이미지 부분에 떨어뜨리고, 부식을 했다.

무수히 많은 세월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spit-bite를 하면서, 지붕이 버터냈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표현해 보았다.

완성된 이미지들은 포맥스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드로잉 상태대로 외곽선을 따라서 조각조각으로 잘랐다. 그들 중에 높게 포

현될 것과 낮게 표현될 것을 구분하고, 높이를 결정해서 입체를 만들었다.  
작품을 입체화 시켜서 실제 공간으로 옮겨 벽에 걸어보았을 때, 높이의 단  
차들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의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작품 2】 A Piece 75×30×4cm mixed media 2004

## 【작품 2】 A Piece

어떤 형태를 볼 때, 본인의 감성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깨진 거울에 정물을 빗대어 볼 때처럼, 지붕이 각각의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 제작 중 드로잉 과정은 많은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찾아서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이 작품에서는 두장의 사진을 연결해서 같은 크기로 확대복사를 하였다. 지붕의 형태가 아닌 부분은 블랙으로 강하게 처리하였다. 톤의 차이로 근경과 원경을 표현했다.

사진이미지에서 보이는 실제 지붕의 기울기나 선의 간격을 맞춰서 표현했다. 시트지를 이용해서 실제 지붕에서 느껴지는 굵고 강한 라인들을 표현해 보았다. 라인부식은 모두 시트지를 붙이고 칼로 잘라내서 표현 하였다. 라인 작업을 마친 후에 그 상태로 깊이 부식된 선을 얻기 위해 deep-etching을 했다.

deep-etching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etching작업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도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판을 단련시키는 과정- 부식시키고, 닦아내고, 판을 깎아내고, 다시 부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야 완벽한 판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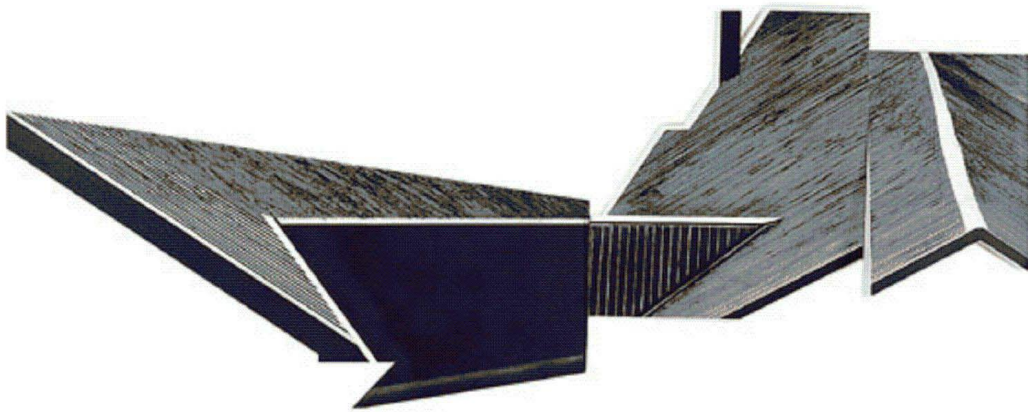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한 화면에 배치될 때 강약의 조절이 필요하다. 두 조각 중에 왼쪽조각에서 근경과 원경은 톤의 조절로 표현하였다. 앞쪽의 근경의 느낌은 밝음으로부터 어두움으로, 원경의 느낌은 어두움 중에 미묘

한 정도로 차이를 주면서, 서로 다양한 층의 공간이 구성된 모습을 담아냈다.

색은 black과 silver를 섞어서 사용했다.

silver를 쓴 이유는 black속에서 미미하지만, 광택의 효과를 주려고 했다.

black은 화면을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작품 3】 A Piece 145×50×5cm mixed media 2004

### 【작품 3】 A Piece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오기 전 단계의 작업이다. 이 작품 역시 시트지를 이용해서 한 작업이다. 가는 라인들을 먼저 깊게 부식(deep-etching)시키고, 위에 면에는 거칠게 에칭팅트를 해서 여러 번의 부식과정을 거쳤다.

전체적인 검정색(black)의 형태는 크기도 다르지만, 뺏어나가는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진다.

3조각으로 이루어진 전체 형태를 들여다보면, 왼쪽에 첫 번째 형태는 black의 넓은 이미지와 white의 좁은 선이 어울려져 있다.

규칙적인 라인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면처럼 보이면서, 어두워진다.

2번째 형태는 지붕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왼쪽에 넓은 black면에 연결된 작은 면의 라인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경계를 풀어준다.

단차를 보면, 첫 번째 조각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높이가 낮아지고, 다시 두 번째 조각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높이가 높아진다.

세 번째 조각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높이가 높아진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각과는 옆면의 단차가 보이면서 입체감은 더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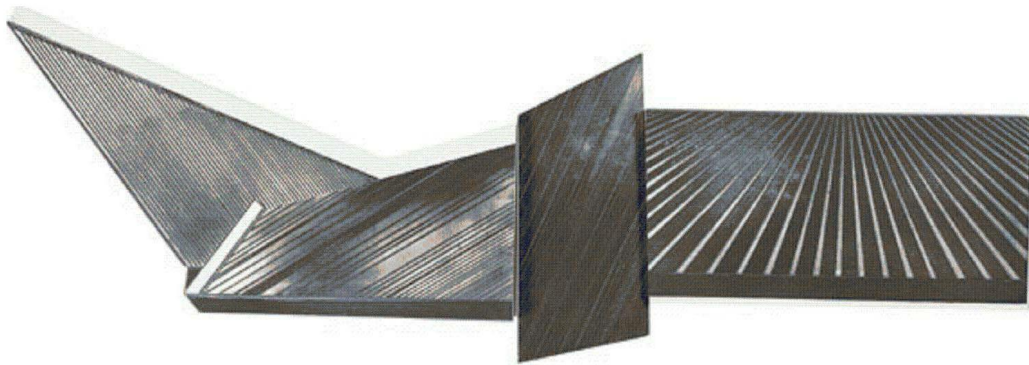
단차는 시각적으로 돌출된 부분을 더 부각되어 보이게 하기 위함이고, 높이의 차이로 인해서 입체형태가 가지고 있는 옆면을 보임으로 실재감을 더 표현하고 싶었다.

아직까지는 지붕의 어떤 부분에서 형태를 가져왔는지 보인다.

다만, 앞의 동판의 느낌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일정한 라인들 위로 거침없

이 찍혀진 불규칙적인 흔적들이다.

그 불규칙적인 흔적들은, 화면에서 조금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위해 표현되어졌다.



【작품 4】 A Piece 140×40×5cm mixed media 2004

#### 【작품 4】 A Piece

이 작품은 처음에 작게 한 것을 크게 확대해 본 것이다.

작은 작품은 색조가 거의 블랙이어서 답답함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변화를 주면서 색에서도 변화를 주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지붕의 모습들 중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재조합 한 것이다. 각각의 면은 각기 다른 선들로 서로의 형태들과 조화를 이룬다.

앞의 작품들과 같이 시트지를 사용하였고, deep-etching, spit-bite 기법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형태는 독립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세 조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형태가 됐을 때,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되면서 이제는 지붕 같은 느낌이 없다. 단순하게 구조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보일 뿐이다.

각각의 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조각에서 강한 스트라이프의 넓은 면은 작은 화이트 면이 받아주고, 그 면에서는 다시 사선이 끝을 향해 펼쳐진다.

첫 번째 조각을 이루는 형태의 외곽에는 포맥스가 그대로 노출되어 보이는데, 벽의 여백과는 다른, 이미지 자체의 여백이다.

두 번째 조각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백이 없이 답답하다.

단지, 오른쪽 윗면에서 약간의 빛이 들어오는 듯 하게 표현되었다.

불규칙한 넓이의 면들은 대각선방향으로 확장시켜주는 느낌으로 표현했다.

단차를 보면, 왼쪽의 높이보다는 오른쪽의 높이가 낮아서 세 번째 면의 단차만큼 그림자가 반영되게 표현하였다.

세 번째 조각은 가운데서 시작한 굵은 라인들은 오른쪽 왼쪽으로 비스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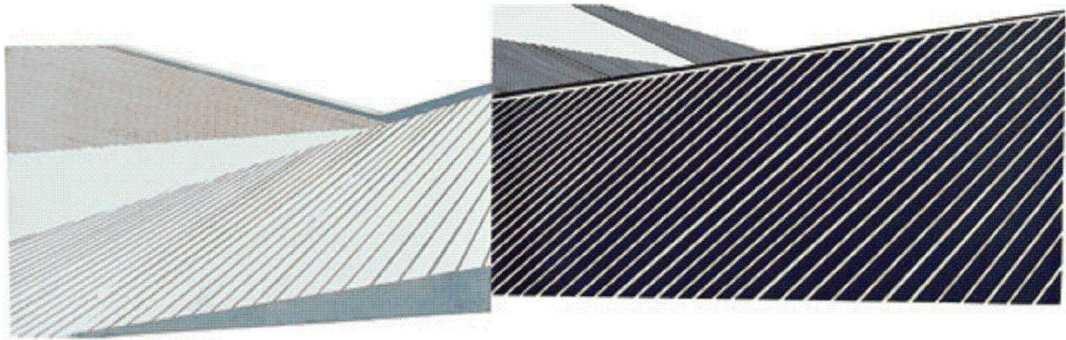
히 뺏어나간다. 화이트의 채도가 높아서 차지하는 면은 작지만, 시각적 효과는 훨씬 강하게 보인다. 두 번째 조각의 오른쪽 윗부분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은 세 번째 조각 왼쪽에서도 약간 표현해 주었다.

흰색의 선들은 아래쪽으로 올수록 넓어지고 서서히 밝아진다.

세 번째 조각에서 오른쪽과 아래쪽 여백에 포맥스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전체적으로 답답한 구조속의 공간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였다.

이 작품은 밝은 은색으로 가까이에서 보면 은구슬을 박아 놓은 것처럼 화려하다. 앞의 검정색에서 보다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여러 조각의 작품인 경우는 벽에 설치를 할 때, 처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합될 수 있다. 이것이 본인작업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실제 벽을 만났을 때 또 하나의 퍼즐 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다.



【작품 5】 A Piece 146×40×7cm mixed media 2004

## 【작품5】 A Piece

작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기법을 찾게 되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형태도 찾게 된다. 본인의 작업에서 형태는 더 단순해지고, 선들은 더욱 간결해졌다. 이제 어디서도 지붕의 형태는 찾을 수 없다.

동판에서 지판으로 옮겨온 작업이다.

오목판법에서 볼록 판법으로 바뀌었다. 단순한 만큼 이미지는 강해졌다.

오른쪽의 black면은 쳐다보고 있으면,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것이 튀어나와있는 면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이다. 사선의 굽적굽적한 선들은 오른쪽에서 왼쪽부분으로 그어지는데, 선들은 계속 위쪽으로 뺏어나갈 것 같은 정확한 진행 방향을 갖고 있다.

반면, 색이 그리 강하지 않은 왼쪽의 선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

왼쪽에 전체 색상은 밝은 blue(silver가 첨가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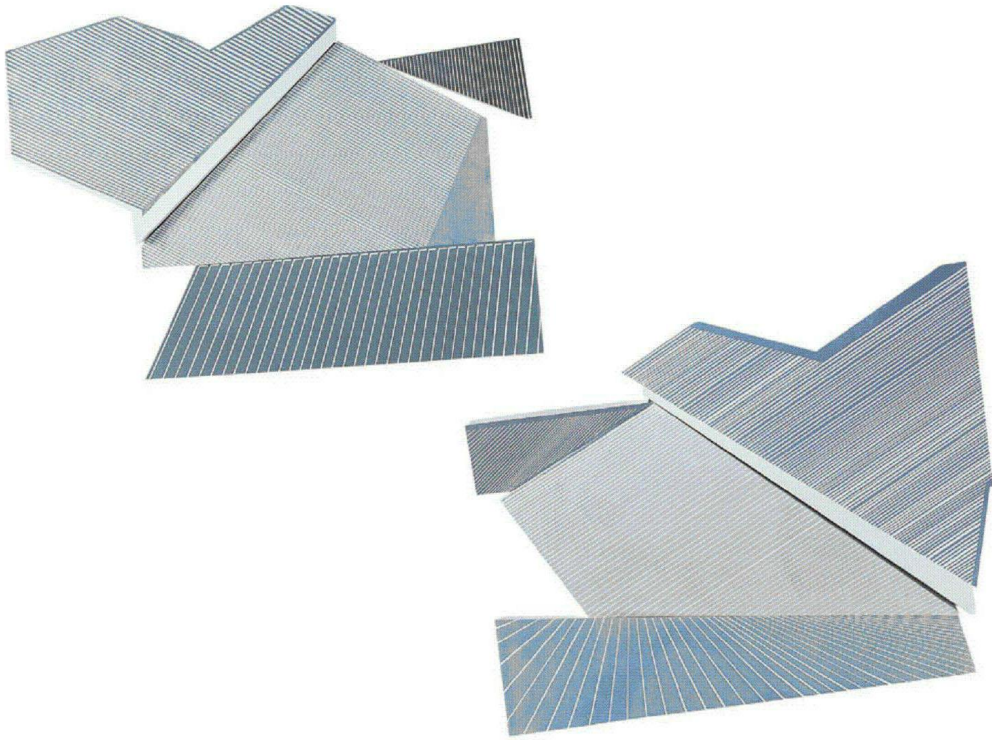
은색은 금속적인 느낌이 강한 색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blue에 silver를 첨가함으로써 금속성은 조금 배제되었다.

이 작품은 특히, gloss varnish를 코팅한 느낌이 잘 어울렸다.

gloss varnish로 코팅한 판화지는 가죽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2조각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작품은 강한 스트라이프를 표현했다.

단순한 기하학으로 가기위한 전초전 같은 작품이었다.



【작품 6 · 7】 A Piece 106×80×5cm · 106×98×5cm  
mixed media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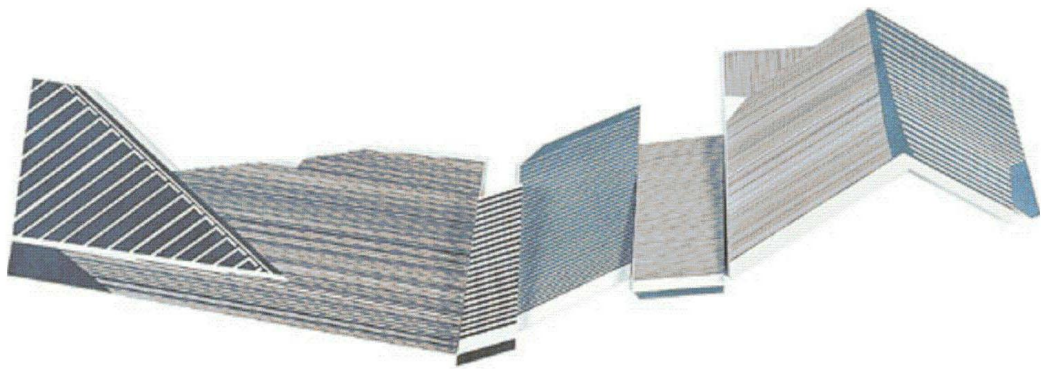
## 【작품 6 · 7】 A Piece

드로잉 단계에서 구조적인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다.

기하학적인 여러 조각들이 어울려 있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변화는 color이다. blue가 다양해지고, silver의 양도 많이 조절되었다. blue와 red 그리고 silver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들은 각각의 면들에 찍혀졌다.

복잡한 선들 중간부분에 보이는 노출된 포맥스는 선들 사이를 환기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단면들이 연결된 부분에는 새로운 경계가 생기고, 연결된 면과 면 사이는 새로운 형태가 되었다.

이 작품들은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선들의 느낌을 한데 모아서 만든 것이다. 한 공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선들을 이질적으로 한곳에 모아놓고, 본인의 감성대로 조합한 것이다. 이 작품역시, 전시장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던 작품이다. 벽에다가 퍼즐을 맞추는 기분으로 조각을 맞춰나갔다.



【작품 8】 A Piece 152×32×5cm mixed media 2004

## 【작품 8】 A Piece

여러 가지 드로잉을 펼쳐놓고, 이 형태들을 이리저리 맞춰 보았다.  
크고 작은 형태들을 조화롭게 맞추고, 하드보드지로 판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품은 라인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지층 모양의 형태가 보여지면서 라인들 위로 깊숙이  
들어온 삼각형 같은 사각형의 독특한 모양이 보여진다.  
여기서도 white면은 라인들 사이사이로 공기가 돌아다닐 수 있게 시야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작품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white면은 복잡한 구조를 풀어주고, 시  
선이 머물러야 할 곳을 만들어준다. 라인의 두께와 단차도 모두 틀리고, 어  
떤 형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불완전한 형태들이 재조합되어서 완  
전한 하나의 형태가 되었다.

각 조각마다의 라인이 틀린 것은 한쪽방향으로 속도를 내어서 질주해 오다  
가, 그것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의 조각이 생겨남을 표현했기 때  
문이다.

단차는 그 속도감을 끊어주고 다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단차 때문에  
생긴 그림자들은 그들끼리 또 하나의 면을 만든다.

중간 톤의 그림자들은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넓은 면적을 갖기도 하고, 작  
은 면적을 갖기도 한다.

이 작품은 선들의 변화에서 오는 속도감과 단차에서 오는 그림자의 표현  
이 두드러지는 작품이었다.

### Ⅲ. 결 론

예술은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술은 개성적 산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일반적인 것도 작가의 감성과 언어를 거치면 새로운 사물, 대상, 의미로 재구성되거나 재창조된다는 의미이다.

본인 작품에서 일반적인 지붕의 형태가 본인의 감성과 시각을 통해 작품으로 형성 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본인이 작업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자유로운 작업방식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작품은 순수한 조형적 구성과 이미지 표현을 이끌어낸다. 형태의 다양한 크기와 다중적 시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은 더 이상 지붕의 형상이 아니라, 순수한 기하학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기하학적인 요소가 작업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서술하였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다중적 시각을 본인작품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프랭크 스텔라의 캔버스를 탈피한 사각형태는 형태적인 부분에서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또 표현요소로서 단순하고 규칙적인 선들은 점차 다양한 두께와 부피로 바뀌어, 보는 시각에 따라 이중적으로 보이거나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켰다. 색채는 검정색의 단순함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금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판화가 가지고 있는 평면성을 극복하고 공간으로 투영됨으로서, 작품이 실제 공간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조립될 수 있는가

를 보여주었다.

본인은 앞으로 작업과정에서 입체조형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확대하고,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조형성을 입체적, 축각적 측면으로 확대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조형예술로서 판화를 개척하고, 기존의 판화장르가 가지고 있었던 크기의 제약과 표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 작 품 도 판



【도판1】 데이비드 호크니,  
『 Chair 』 1985.  
Photographic collage



【도판2】 데이비드 호크니,  
『 The Desk 』 1984.  
Photographic collage

## 참 고 문 헌

김 준연, 배 용준 「예술과 철학」, 문경출판사, 2003.

J. 호이징하 「호모 루덴스」, 까치글방, 2003.

멜빈 레이더, 버트람 제섭 「예술과 인간가치」, 김 광명 역, 이론과 실천, 1988

육 명심, 「세계사진가론1900-1960」, 열화당, 1987.

전 상범, 「구성」, 보음사, 1997.

C. A. 피들러, 「조형 예술론」, 미진사, 1985.

R.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 1986.

# ABSTRACT

## From the image of roofs to geometrical figures

Choi, Sun Hyang

Major in Media · Print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and formative aspects, centering on my works produced from the year 2003 to 2004 and exhibited at the graduation exhibition.

I found out the beauty of shape in the unrefined image of roofs, caused by the different angle of view and visualized it, thus voluntarily representing the shape which the peripheral shadow was hidden other than the frame.

Beginning with the material of roofs but developing it in geometrical shape, I encountered with a new shape. I enjoyed my work like play and radiated my sensitivity and individuality to the full. Especially, I applied somewhat voluntariness to the shape through unrestrained

viewpoint and observations.

During my entire work, I did not place any restriction on it. As a result of it, a variety of shapes poured out. Diverse images were combined into a puzzle board, making up a somewhat geometrical shape.

The geometrical shape is the representation of uniqueness, based on play-like feeling. It increasingly develops into unformed appearances. In other words, a small geometrical shape is combined into a large mass, which assumes three dimensional images, making up an emerging figure.

At this time, Formax plays a material role in carving so that a geometrical mass can make up a solid. Based on the history of art, this study compared multi-perspective by David Hockney to observe objects with Shaped Canvas by Frank Stella, free from the four angle of canvas.

This study described what a role the features of line and colors played in making a work appear in three dimensions and specified the intention of expression and techniques in my works, providing the pictures of works and proposed the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